

元曉의 和諍思想에 의한 勞使分爭의 調整

김 영 종*

I. 서 론

협력과 대립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노사 관계는 구체적인 환경적 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게 된다. 부가가치의 형성 과정에서 때로는 긴밀한 협력 아래 산업 평화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신분상의 지위나 이익 분배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비생산적 분쟁과 집단적 파업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기 침체와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노사 분쟁과 파업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조 조정이나 성과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의 노사 분쟁은 아직도 우리의 산업 사회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노사 당사자는 물론 국민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

이러한 노사 분쟁은 대개 국가의 제도적 분쟁 해결 장치를 통하여 해결된다. 그러나 법적 규제나 분쟁 조정 장치가 대형 또는 장기적 노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데 전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경우, 국가 또는 제3자의 규제나 조정은 그럴듯한 효과를 지니기가 어렵고, 특히 국가 공권력의 권위가 약화되거나 조정참가자의 전문성의 미약으로 인하여 조정력이 한계를 지니고 있을 때, 노사분쟁의 조정메커니즘은 더욱 무력해지기 쉽다. 김대중 정부의 말기가 되는 21세기 초기 한국의 노사분쟁조정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경향을 상당히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 사회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비생산적 노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조정 장치를 어느 정도 보완이라도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노사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사당사자의 인식의 전환이 그런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신라시대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사 전 과정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불교 연구가의 한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는 원효가, 난분하였던 신라의 교리와 사상의 통일을 위하여 제시한 화쟁사상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및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는 집단적 분쟁과 파업을 유발하고 있는 현대 노사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토록 하고, 나아가 일부 산업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극단적인 대립적 사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노사 협력과 산업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먼저 원효의 화쟁사상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 한국 사회에 나타나

고 있는 노사 문제 및 노사 관계의 시대적 특징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원효의 사상적 배경과 화쟁사상

1. 원효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원효는 우리 겨레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며,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불멸의 금자탑을 쌓은 위대한 저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사상과 학술적 저서는, 북으로는 대륙을 거쳐 중국으로, 동으로는 바다를 건너 일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까지 그의 연구 결과가 전해진 바 있다. 그러한 연구 업적과 사상사적 지위를 높이 평가하여 불교사상의 연구자들의 일각에서는 석가 세존의 후손으로서 인도에서는 용수보살을, 중국에서는 지자대사를 대표적 불교사상 연구가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원효를 같은 반열에 세우고자 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¹⁾

그러나 원효의 연구 업적과 사상이 위대함에 비하여 그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자취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명산대찰이나 혈사²⁾의 곳곳에 원효의 생애와 족적에 관한 기록들이 간혹 남아있기는 하나 실체적 진실성에 대한 고증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송고승전과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10여세에 출가하여³⁾ 일정한 스승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불교를 중심

1 이종익, 1997, p.323

2 혈사란 비구가 산 속에서 수행하는 토굴을 지칭하는 것이다.

3 원효의 출가시기에 관하여는 다른 주장도 없지 않은데, 예컨대 29세에 출가하여 황룡

으로 학업에 전념하였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전하여져 오고 있다.

원효는 특정 종파나 일정한 스승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으며,⁴⁾ 불교학뿐만 아니라 논어, 맹자, 장자 등의 유학서와 도가서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의 사상과 이론은 특정 종파의 견해에 치우치지 않았고, 다양한 주장과 논쟁을 모두 받아들여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⁵⁾ 그리고 깨침을 얻은 후 보여준 중생구제와 포교를 위한 그의 자유분방한 행동들, 즉 술 마시고, 노래하고, 구걸하면서, 설교하는 그의 기행에 가까운 행동들은, 하나의 극단적 주장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불경에 관한 백가쟁명을 원활하게 조정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의 기본적 사상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원효가 다양한 불경을 연구하고 대중 속에서 온몸으로 포교활동을 벌였던 시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이 병립하여 국토확장을 위하여 각축을 벌이던 경쟁의 시기였으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불교의 전승이 늦어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 들인 지 약 1세기 밖에 되지 않았던 초창기였다. 그러나 신라는 불교를 정교의 지도 이념으로 삼아 국운이 신장됨으로써 진평왕 때에는 북으로는 추풍령을 넘어 한강 이북에까지 나아가 북한산에 국경비를 세우고, 동북으로는 함흥의 황초령에 국경개척비를 세웠으며, 서남으로는 가락국을 정벌하여 창녕에 정계비를 세우게 되었다. 가야흐로 삼

사에 들어갔다는 일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역사적 진실성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삼국유사와 고려 대각국사가 남긴 시에 의하면 원효는 의상과 함께 고구려 고승으로서 백제땅인 전주 고대산으로 옮겨 간 보덕화상의 강하에서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우고, 원효가 반고사에 있을 때 남지스님에게서 불교사상에 대한 배움이 있었다고 전한다.(불교신문사, 1990, pp.42~46)

5 한국철학사연구회, 1997, p.70, 장휘옥, 1999, pp.37~47

국 통일의 가능성이 조금씩 엿보이기 시작하는 국가 발전의 시기였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삼국 통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로서의 불교적 이념과 정신적 토대로서의 불교 교리는 다소의 문제가 없지 않았다. 당시 불교의 핵심은 인과설에 토대를 둔 소승불교였으며 불교의 궁극적 가치는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반이나 피안에 있고, 당시의 석학 강수의 지적처럼 ‘불법은 속세를 떠난 외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나아가 교리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분분하고, 특히 유식과 중관의 대립, 진속의 차별에 관한 쟁론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인 시대적 상황과 이념적 분열 등을 고려할 때 화쟁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원효의 불교 사상은 이론적으로 매우 독특하면서도 또한 사회적 적시성이 매우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2. 원효의 불교 및 화쟁사상 연구

원효가 남긴 저술의 양과 질의 평가에 대하여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100여부 240여권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통설로 간주되고 있다.⁶⁾ 이렇게 볼 때 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를 통틀어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최고 최대의 저술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심오한 저서들 중에서 『금강삼매경론』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극찬을 받았으며, 의천은 이를 바탕으로 금강

6 하지만 이들 가운데 현존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원본형태가 13종, 잔본형태가 7종으로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김영태, 1999, pp.225~289)

경을 강의하기도 하여 탁월한 저서로 평가받고 있고, 『대승기신론소』와 『화엄경소』는 법장을 비롯한 당나라 화엄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화쟁사상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십문화쟁론』은 중국, 일본에까지 소개되었음은 물론 번역되어 인도에까지 유포된 바 있다.⁷⁾

원효의 불교에 대한 연구가 폭넓고 깊이가 있는 만큼 국내외 불교학자들의 원효에 대한 연구도 다채롭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불교학계의 원효에 대한 근대 초기 연구는 이기영 박사, 김영태 교수를 비롯한 불교학자 개인들의 관심으로 단편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부터는 원효학회가 창립되고, 원효학연구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이들 학회와 연구 단체가 중심이 되어 근래에 와서는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도 비교적 정리되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원효연구원과 분황사 부설 원효학연구원에서는 매년 연구 논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원효연구학회 또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특히 1994년에는 중앙승가대학에서 그 동안 원효에 관한 1,000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고 재정리하여 10권의 원효연구논선집을 발간한 바 있다.⁸⁾

이런 연구들 중에서 원효 불교 사상의 중심이 되는 화쟁사상에 관한 연구만 하더라도 적지 아니하다. 앞의 10권의 연구논선집 중에 2권은 오로지 화쟁사상에 관한 논문만 골라 실은 것이다. 그 외 불교학회나 불교학술지에는 꾸준히 화쟁사상을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⁹⁾ 이런 논문들은 대개 화쟁사상

7 김상현, 「원효」, 고려원, 1994, pp.191~192

8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1994

9 박재현,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고」, 『불교평론』 제33권 제3호, 2001, pp.191~215)

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진의를 탐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논문들 중에는 화쟁사상을 중요한 서양 철학자들의 핵심 사상과 비교하거나¹⁰⁾ 그 사회적 의의를 평가하고 민족 통일의 사상적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하는 것들도 간혹 발견되고 있다.¹¹⁾

그러나 화쟁사상을 노사 분쟁이나 노동 문제의 해결 대안과 관련하여 논의하거나 분석한 것은 아직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Ⅲ. 한국의 노사 관계 변화와 노사 분류 동향

1. 노사 관계의 변화 경향

1987년 6.29선언은 한국 노사 관계에 있어서 의미있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화 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선언은 노사 분류의 폭발¹²⁾과 더불어 사용자 우위의 전통적 한국 노사 관계가 노사 대등의 방향으로 이행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노사 관계는 다시

10 김복인, 1991, pp.137~160

신옥희, 1994, pp.226~261

11 김형효, 1989

오강남, 1987

이기영, 1983

박성배, 1991

최병현, 2000, pp.457~462

12 1986년 276건이던 노사분류가 6.29선언이 있었던 1987년에는 3,749건, 1988년에는 1,873건에 이르고 노조조직률도 1986년에는 15.5%였던 것이 1987년에는 17.3%, 1988년에는 22.0%로 급증하였다.(한국노동연구원, 1989, p.44, p.168)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가 외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신자유주의를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선택하고, 기업, 금융, 공공 부문 및 노동 부문의 전반을 통하여 구조 조정 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노사 관계의 역학 관계는 다시 사용자측 위주로 재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³⁾

사용자 우위의 노사 관계는 1989년 18.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조 조직률의 저하와 1990년대 이후 연간 300건을 넘지 아니하고 있는 노사 분규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통계적 수치들은 한 마디로 1990년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1997년말부터 IMF체제에 들어가고, 노사 관계의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몇 년간 노사 분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이후 3년 간 두 자리 수에 머물렀던 연간 노사 분규 건수가 1998년에는 129건, 1999년에는 198건, 그리고 2000년에는 250건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의 경우 파업 참가자수도 178천명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고, 노동 손실 일수 또한 1,894천일로 1992년 이후 가장 길다.¹⁴⁾ 그리고 2001년에는 노사 분규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234건에 이르고 있다.¹⁵⁾

1990년대 이후 비교적 안정 지향적 추세를 보이던 한국의 노사 관계가 2000년대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다시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드는데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나 대개 다음 몇 가지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13 김정환, 2000, p.23

14 KLI, 2001, p.144

15 노동부, 『매월노동동향』 2, 한국노동연구원, 2002, p.81

첫째, 경기 침체로 인한 감축 관리와 구조 조정에 따른 집단해고가 단체 교섭의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재벌그룹이나 대기업의 흡수 합병 및 기업의 퇴출을 둘러싸고 심각한 노사 갈등이 야기되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국·공영기업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 전략과 관련하여 이에 반발하는 장기적이고 투쟁적인 노조의 반발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셋째, 정부와 사용자 위주로 추진되는 구조 조정정책에 대한 노조의 집단 반발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였고, 노동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둘러싸고 전국 차원의 연대 파업이 간혹 시도되고 있으며,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노사 관계가 이와 같이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¹⁶⁾ 외국 자본의 투자 기피 현상마저 생겨나는가 하면 민간 부문이나 공공 부문에서 다 같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경기회복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노사 분류의 주요 쟁점

노사 분류의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임금 인상 등 분배에 관한 사항과 고용 등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는 김대중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16 2000년도 노사분류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16,357억원, 수출차질액은 636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기업보고를 정부가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정확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노동부, 2001)

에 모두 노사 분류의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최근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개 후자의 문제, 즉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998년부터 극심한 경기 침체 아래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일체가 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실업 대책과 조정 능력이 미약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2기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참여 조건으로 정리해고 및 근로자 파견제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요구하고, 한국노총 또한 산하 조합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에 따른 고용 안정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리 해고제 철폐 등 5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임을 이유로 5월 27일 1차 총파업을 실시하여 노사 관계가 혼미상태에 빠지게 되었고,¹⁷⁾ 현대 자동차가 5월 19일 8,189명의 정리 해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노조의 반발과 노사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1999년도에는 우리 경제가 예상과 달리 회복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1998년도에 -5.8%를 기록하였던 경제성장률이 1999년 1/4분기에 들어와서 4.5%성장률을 보이면서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구조 조정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공공 부문의 구조 조정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노사관계는 지난해 보

17 5월 27일 파업사태를 보면 민주노총은 노조 132개 노조 123,416명이 참가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노동부는 55개 노조, 41,928명이 참가했다고 집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파업규모의 크기에 대한 차이는 다른 파업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였다. 그 외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조의 교섭 전략이 고용 안정을 담보로 한 양보 교섭 위주로부터 삭감된 임금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되찾기 교섭으로 전환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1999년의 노사분규는 198건으로 지난해 129건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에도 하반기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되찾기 교섭이 지속되고, 구조 조정과 공공 부문민영화를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 그리고 주요 노사 쟁점에 대한 입법화의 무산으로 인한 양대 노총의 공동 투쟁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노사 분규는 더욱 증가되었다. 특히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노사 분규는 그 규모도 방대하고 장기 지속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회 경제적 영향이 적지 않았다. 첫째,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고용조정사례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기아, 쌍용, 대우 등 4대 자동차 회사의 구조 조정 철회와 대우자동차의 해외 매각 반대를 둘러싸고 대규모의 장기적 파업이 발생하였다. 둘째, 금융 개혁과 관련한 은행 합병 방안에 대하여 금융 노조가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였다. 셋째, 공공 부문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전력 산업, 철도 산업, 그리고 통신 산업 등에서 해외 매각, 인력 감축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구조 조정과 관련한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사 분규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사 관계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을 협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주5일 근무제 등에 대한 입법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관함으로써 노사정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말았다.

2001년에도 노사 관계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장기적 경기 침체와 국제 경쟁의 격화로 인하여 노사 화합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면서 노사 분규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사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등 공공 부문 노조들은 '국가 기간 산업 민영화저지 공동 투쟁 본부'를 출범시키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공동 투쟁을 선언하였으며, 태광산업에서는 단체 교섭을 둘러싸고 3개월 동안 파업이 지속되었고, 현대자동차에서는 2조원의 영업 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배분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분간 파업이 벌어지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요컨대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안정 추세를 유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구조 조정과 단체 교섭 및 임금 협상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대형의 노사 분규가 발생하였고, 이런 노사 분쟁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와 조정력의 미흡, 그리고 노사의 인식차이, 특히 한 쪽의 주장과 판단에 대한 편견과 지나친 집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 나타났던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정책은 여전히 노사 분규의 쟁점이며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여지를 안고 있다.¹⁸⁾ 그리고 그런 불씨는 노사간의 인식차이가 클 때 새로운 갈등과 대립으로 불타 오르게 된다. 즉 노조측이 정부의 구조 조정 정책이 정부의 구조 조정 정책을 해고 만능의 정책적 도구로 인식하고 합의주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성장연합과 노조 배제주의에 익숙한 사용자와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구

18 Berry, 1987, p.185

조 조정을 단행하려 하면 양자간의 인식차이는 진화의 접점을 찾는 대신 불길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¹⁹⁾

IV. 화쟁사상과 노사 관계

1. 화쟁의 개념과 노사 분쟁

화쟁은 회통과 더불어 원효의 사상을 대표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화쟁은 대소승, 공법상이 서로 대립되어 있고, 상반되는 교의로 인한 제가의 편집과 쟁론을 조화하고 회통하여 삼승이 곧 일승이라는 통불교의 원리로 귀납시키는 사상이다.²⁰⁾ 그리고 이 사상은 불교 이론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한 것은 물론이고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 정신적 기능까지 담당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런 화쟁사상에 대한 논의는 대립과 다툼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그의 대표적 저술인 『십문화쟁론』²¹⁾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화쟁의 개념은 대개 ‘논쟁의 화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공허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나는 옳고

19 조순모,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KLI, 2001, p.102

최영기의 3인,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pp.91~99

20 조병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신태양사, 1962, p.124

21 십문화쟁론은 여러 경.론에 흠어진 교리적 대립을 열 가지의 범주로 포섭하여 그에 대하여 화해를 시도한 종합적인 화쟁의 저서로 생각된다. 이 문헌은 인도지나계의 승려가 천축국에 가져가서 범어로 번역하였다.

(고익진, 「원효의 화쟁적 성격」,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6)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 '나는 적절하지만 남들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하면서 드디어 황하와 한 수를 이루었구나." 그리고 본문에서 '여리회통 여실화해'라고 적고 있다. 이는 허다하게 존재하는 날카로운 대립과 다툼을 '쟁'으로 표현하고 이것들이 모두 그 근원을 함께 함을 전제로 '화'의 논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화쟁은 특정의 주장을 인정함과 인정하지 아니함을 동시에 포용하고 있으며,²²⁾ 양시론과 양비론을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서 통합의 논리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장자의 제물론과도 상통한다. 장자는 그의 제물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나와 당신이 논쟁을 한다고 하자. 당신이 나를 이기고, 내가 당신에게 졌다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당신을 이기고 당신이 내게 졌다면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렸는가? 아니면 두 쪽 다 옳을까? 두 쪽 다 틀린 것일까? 나도 당신도 그리고 제3자도 모두 옳다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²³⁾

노사간의 분쟁은 노사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다름 또는 노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구조 조정을 위한 집단 해고의 예를 들어 보자. 사용자는 노동 비용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단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노조측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를 적절치 못하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의 주장이나 근로자의 반대 중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르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옳거나 그르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은 결코

22 김형효 외, 1994, pp.186~190

23 안동립 역주, 1993, pp.82~83

쉽지 아니하다. 결국 노사가 기본적으로 공존하는 존재임을 전제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노’가 없는 ‘사’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사’가 없는 ‘노’도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사 분쟁도 원효가 말하는 화쟁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노사가 같이 함을 전제로 화의 논리를 통하여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원효가 말하는 화의 대상인 불교의 교리에 관한 논쟁과 현대 사회에 있어서 노사간의 분쟁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쟁론의 대상은 분명히 다르다. 원효의 화쟁사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논쟁의 대상은 주로 불교 이론과 개념, 넓게는 삶의 본질에 대한 해명에 관한 것이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분쟁의 대상은 대개 경제적 성과의 배분이나 근로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한 것이다. 분쟁 대상뿐만 아니라 분쟁의 주체 또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원효가 말하듯이 대립과 갈등을 지니는 학자들의 견해가 한 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대립적 소견은 대개 노와 사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²⁴⁾

이와 같이 분쟁 대상의 성격이 상이하고 분쟁의 주체 또한 같지 않지만 원효가 상정하는 화쟁의 개념과 논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노사 관계에도 그대로 원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분쟁의 본질은 어느 것이나 서로 같지 않음에 있고, 화쟁의 기본적인 이념은 통합적 대공정을 통하여 다양하게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진리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24 노사양측의 견해 중 사용자의 견해와 주장은 대개 처음부터 한 가지이지만 노조측의 견해와 주장은 처음 몇 가지가 제기되어 토론과 협의과정에서 한 가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불교의 논쟁을 화해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화쟁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유 아닌 것도 아니고, 무 아닌 것도 아니며, 유무도 아니라고 말하여 일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결국 유와 무,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며,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부정과 긍정의 차원을 넘어서 실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대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²⁵⁾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적지 않은 노사분쟁 또한 제도적으로 규정된 노사 대립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단편적인 부정이나 긍정의 차원을 넘어서 대긍정의 자세로 접근할 때 비로소 원만한 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래 유럽 각국에서 나타났던 노사간의 날카로운 대립과 격렬한 분규들도 노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타협정신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²⁶⁾

2. 화쟁의 논리와 노사 분쟁의 조정

화쟁의 논리는 소소한 경.론의 다종다양한 쟁론을 화해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는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중관(무)과 유식(유) 두 학파의 교리적 대립, 세속적 진리(俗제)와 출세간적 진리(진제)에 대한 차별적 가치관을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논리는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²⁷⁾ 여기서는 이런 논리가 노사 분쟁의 상호 조정을 통한 해결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차례

25 윤창영,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광주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집, 2001, p.36

26 Visser & Anton, 1997, p.245

27 박종홍 ; 김선근, 1994, pp.53~58

대로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1) 개합과 중요의 논리

수많은 불교 경전의 부분들이 존재하나 이를 불타의 뜻에 의하여 통합하면 하나의 의미로 돌아간다. 서로 옳고 그르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으나 각종의 이론들은 이를 하나로 화합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원효는 '화엄경 중요', '법화경 중요' 등 17종의 중요를 저술하였다. 여기서 중요의 '중'은 '다'로 전개되고, '요'는 '일'로 통합되니 이것이 바로 개합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원효는 불타의 뜻을 열면 무수히 많은 종파가 생기는 것이고, 종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기들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입파의 원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고 화해하면 하나의 뜻으로 통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개합의 견지에서 언제나 교리의 전체를 통찰하고 중요한 입장에서 간명하게 대립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상을 재정리하였던 것이다 이는 多로써 무한한 불타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것은 一로써 다시 모아질 수 있다는 불교의 기본 원리를 관통한 것이다.

노사 관계에서 교섭과 협상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주장도 여러 가지로 전개될 수 있다. 민주적 노사 관계에서는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개인적 소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사용자측의 계선 조직 담당자들까지 쟁점의 본질에 대한 해석이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소신있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노사 각각의 의견으로 조정되어 집약되어야 하고 노사간의 대립된 주장과 의견은 다시 교섭을 통하여 하나로 조정되어야 한다. 노사양측의 주장과 의견이 개

합과 중요한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전개되고 화쟁의 원리에 따라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원리에 따라 노사 문제가 재인식되고 조정의 방도를 찾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노사 당사자가 사고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²⁸⁾

(2) 입파와 여탈의 원리

원효에 의하면 ‘入’은 긍정적 성립이며, ‘破’는 부정적 논파를 의미한다. 그리고 ‘與’는 받아들이는 것이며 ‘奪’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의 경전중 파탈의 부정적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반야 중도라고 하면 입여의 긍정적 입장에 치우친 것이 유식 사상이다. 승량은 부정에만 집착하여 3륜 철학의 입장에 섰고, 원측은 긍정에 치우쳐 유식철학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원효는 삼륜과 유식의 사상을 그 입파와 여탈의 원리로 수용하여 보다 심오하고 근원적인 석사의 정신을 구명하였다. 마명의 『대승기신론』이 그러하듯이 긍정하면서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 받아들이는 許與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 정립을 아니함이 없되 스스로의 집착을 버려야 하고, 논파하지 아니함이 없되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모든 분별과 경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한마음의 근원’(一心之源)으로 귀환함으로써 불도에 이르게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파와 여탈의 원리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단체 교섭과 임금협상이 진행되면 대개 노사 양측은 한 쪽의 긍정적 주장을 일단 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야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긍정적 입장에서 전개하면 상대방 또한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이를 부정하게 된다. 협상은 대개 이런 과정이 반복 진행되는 것이 상례이며,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노사 분쟁이 발발하게 된다.

따라서 노사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 견지하되,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세를 버리고 상대방의 주장도 받아들일 것은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 조정 문제에 직면하여서도 노사 양쪽은 경쟁력의 향상과 그를 통한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긍정하면서도 불경기의 실적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단편적인 긍정과 부정의 경계를 넘어 긍정과 부정, 받아들임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하나로 조정될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데 그 구체적 결과는 고용 조정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집단해고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同異와 有無의 논리

생각이 같다(同) 또는 다르다(異)는 것은 서로 독립되어 있거나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를 수 없는 것은 뉘에 卽하여 같음이고 같은 수 없는 것은 同에 卽하여 다름이다. 같음과 다름은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관성의 문제이므로 모든 인식은 이를 ‘依正不二’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同異의 원리이며 유무 또한 이런 원리의 동일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노동 문제에 대한 노사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원효가 말하는 同異의 논리에 의하면 같고 다름은 고정 불변이 아니다. 노사는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각이 다르면서도 같을 수 있고,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다. 노사는 인식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절대적 분별을 극복함으로써 유연한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단체 교섭 과정에서 서로가 공동체임을 바탕으로 타협의 정신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노사 분규의 쟁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이에 따른 파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²⁹⁾

(4) 離邊非中の 논리

원효는 유무의 두 변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단순히 중간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를 離邊非中の 원리라고 한다. 이는 양극단의 배제와 더불어 두 가지 주장의 단순한 중간적 입장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中觀論에 빠지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邊을 떠나지만 中이 아니고, 中이 아니지만 邊을 떠나는 고로 유무의 법이 생기지 않는 바가 없고 染爭의 相이 구비되지 않는 바가 없다. 원효의 이와 같은 사고는 셰익스피어의 문학이나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에서 흔히 등장하는 선택은 논리를 초월하여 사회사상과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는 극단적 대립을 조화 원음의 지혜로서

29 Prutt, D.J. 「Strategie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83, pp.167~184

극복하고자 하는 오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사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의 논리는 거의 통용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전제적 노사관이나 노조의 투쟁적 노사관은 대개 극단을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을 유발시키는 기본적 원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계적인 중간적 입장이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유지시키는 비결도 아니다. 예컨대 고용 조정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대규모의 감원도 불가능하지만 한 명도 감원하지 않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끌어가고자 하는 노조의 방안도 수용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순히 사용자가 계획한 감원 규모의 절반을 감원한다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 방안은 될 수 없다. 감원 규모의 조정과 더불어 별도의 노동 생산성 향상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다양한 기업의 생존전략이 더불어 모색될 여지가 없지 않는 것이다.

(5) 一心의 논리

모든 뜻이 하나로 모인다고 하는 것이 일심이다. 원효는 그의 『금강삼매경론』에서 “여래가 설한 일체의 교법이 일각의 맛에 들지 않는 것이 없다. 일체 중생이 본래 일각이었지만 다만 무명으로 말미암아 꿈 따라 유전하다가 모두 여래의 일미의 말씀에 따라 일심의 원천으로 마침내 돌아가지 않는 자가 없음을 밝히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화쟁의 궁극적 목표는 일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망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인 일심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의 일심에 대하여 『대승기신론』 서문에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무릇 대승의 몸은 너무나 쓸쓸하니 빈 듯하고

고요한 듯 하며, 너무도 맑고 깊으니 차라리 검은 듯 하구나. 이렇게 오묘하고도 오묘하니 어떻게 만상의 겉에 나오겠는가. 이렇게 고요하고도 고요하니 오히려 백가의 말속에 들어 있겠네. 겉으로 들어 낼 수 없으니 오안으로 그 몸둥이를 볼 수 없고, 말속에 들어 있으니 사변으로 그 모양을 말할 수 없다. 크다고 말하면 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작다고 말하면 바깥이 없는 것을 감싸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것을 있음으로 끌려고 하니一如가 그것을 썬서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그것을 없음에 붙들어 두려 하니 만물이 그것을 타고 생겨 나온다.³⁰⁾

원효의 의도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은 일심이 스스로 운동하고 발전해 나감에 따라 드러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큰 바람이 바닷물을 파도로 변화시키지만 파도라는 것은 여전히 물의 본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³¹⁾ 일심의 一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체가 그 안에서 사는 전체이다 조화로운 전체가 일심이니 그 속의 어느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그 전체 속에 하나가 살아있다. 하나는 둘에 대한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다.

원효의 일심을 이렇게 생각하면 야스퍼스의 포괄자의 개념과 유사하다. 야스퍼스의 포괄자는 주객대립의 도식속에서 주관에 대립하는 객관으로서의 인식, 주관에 나타나는 존재, 즉 객관적 의식의 대상으로 파악된 존재가 아니고 주객대립을 초월한 주객미분 또는 주객합일의 경지에 체험되는 비대상적 실재의 차원을 지시한다.³²⁾

30 원효대사전집, 『대승기신론』 서문

31 주홍성외, 1993, pp.58~59

32 Jorgensen Paul Henning, 「Die Bedeutung des Subjekt-Objekt Verhältnisses, für Theologie,」 Herbert Reich-Evangelischer Verlag, Hamburg-Bergstadt, S249, 1967, p.249

그러므로 주객분열을 근본구조로 하는 우리의 일상적 사고의 차원을 초월하여 존재 자체와 하나가 되는 신비적 합일에 도달하지 않는 한 원효가 말하는 일심이나 야스퍼스의 포괄자는 이해 불가능한 단어들에 불과하게 된다.³³⁾

원효는 일심이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대립을 해소하고, 불교의 대립과 갈등을 화쟁시켜 인간의 이상적인 자리, 돌아가야만 하는 원초적 자리로 보고 있다.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다 일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의 지혜는 모양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일심은 완전히 같아서 둘이 없는 것이다.”³⁴⁾

모든 것의 근거가 일심이지만 이는 또한 상대적 차별을 떠나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실재와 본질을 의미하는 性과 외형적 특징을 의미하는 相의 차별도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결국 일심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관념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일심으로 융화되지 않는 것이 없다.

노사는 부가 가치의 형성 과정에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지속하지만 상호간의 분쟁을 둘러싸고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상적인 노사 관계는 역시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공존 공영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여 노사가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일심의 본래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사 대립을 초월하여 야스퍼스가 말하는 포괄자로서 위상이 정립될 때 비로소 생산적이고 안정된 노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33 신옥희, 「一心과 포괄자」 『원효의 보편성』,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1993, pp.227~228

34 『무량수경종요』, 원효대사전집

3. 화쟁의 대상과 적용 범위

화쟁론은 불교의 교리에 관한 구명과 해석으로부터 성립되었다. 화쟁의 논리는 소소한 쟁론을 화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는데 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중관(無)과 유식(有) 두 학파의 교리적 대립과 세속적 진리와 출세간적 진리와 관련되는 가치관에 관한 갈등까지도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이는 불교권의 특수논리가 아니라 종교간의 시비를 해결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 즉 화쟁은 불교의 교파 내 시비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와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여기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시비를 해결하려 한다.³⁶⁾ 이런 논리의 확대적용가능성은 원효가 유교나 도교에 관한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그런 사상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³⁷⁾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쟁의 논리는 현실적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널리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현상들 중에서 다툼과 분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적용을 시도해 볼만한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⁸⁾

그러나 다양한 사회적 다툼과 분쟁들 중에서 화쟁의 논리가 모두

35 고익진, 「원효의 화쟁적 성격」,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7

36 원효의 화쟁 논리를 불교를 벗어나 유교나 도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 주장도 없지 아니하다. 원효가 유교, 도교에 관한 서적들을 읽어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런 종교적 교의를 화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최유진, 1974)

37 박성배, 「원효의 화쟁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 통일문제」, 『원효의 화쟁사상 I』 1979, p.64

38 박성배, 「원효의 화쟁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 통일문제」,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p.92~93

같은 정도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정치, 경제적 다툼이나 분쟁들은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다툼이나 분쟁은 본질적으로 화해와 공존이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노사간의 다툼과 분쟁은 화쟁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훨씬 많다. 노사 관계, 특히 기업별 노사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사는 비록 근로 조건과 성과 배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는 상호간의 공존과 경제 활동 과정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화쟁의 논리가 적용되는 가능성은 분쟁의 이슈에 따라 다르다. 지속적 노사 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배분에 관한 분쟁은 협상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 고용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보다 상대적이거나 화쟁의 논리가 적용되기가 더욱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화쟁의 적용방법

화쟁의 적용을 통한 쟁론의 해결은 매우 합리적이다. 가령 두 교설이 대립하여 쟁론을 일으켰을 때 원효는 그 둘이 지닌 語意뿐만 아니라 말 밖의 참 뜻을 밝혀 주거나 또는 그 둘이 논의된 상황을 밝혀 주거나 또는 그 둘이 '다같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이해시켜준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의견 대립의 득실, 허실, 우열을 따지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둘을 다같이 비판하는 일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그렇게 논단하고 있다.

여래의 진실한 몸(法身)에 色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쟁론을 가

지고 예를 들어보자. 이 문제에 대하여 원효는 妄執(相)을 버리고 한마음에 돌아가는 견지에서는 色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한 마음(性)에서 온갖 공덕을 이루는 견지에서는 색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화해하여 주고 있다.³⁹⁾

원효의 이와 같은 화쟁의 논리는 자신의 다양한 체험과 포교방법을 통하여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는 청년기에는 화랑의 일원이었으며, 한 때는 군사 계급중의 하나인 서당이 되었고, 그 후 위대한 종교 지도자와 사상가가 되었다.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원효는 이런 다양한 인생 행로를 통하여 주체와 객체, 귀족과 평민, 존재와 비 존재, 출세간의 진리와 세속의 진리를 두루 이해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왕과 궁중 관리와 귀족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고 강연을 함으로써 위대한 스승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때로는 탁발승으로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고 무애가를 부르면서 전국을 방황하기도 하였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위치와 역할을 바꾸어 가는 그의 융통성 있는 모습에서 화쟁의 논리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⁴⁰⁾ 나아가 인간들의 사회 생활에 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원효가 화쟁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강조한 것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전개와 통합의 자유, 자기중심주의의 배제, 그리고 상황의 이해주의가 그것이다. 첫째, 전개와 통합의 자유란 원효의 다음

39 고익진, 「원효의 화쟁적 성격」,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6

40 화쟁의 논리에 의하여 불교, 유교, 도교가 융합되어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자연과 내성을 조화시키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교훈 등은 한국의 전통적 중심사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3교의 융합은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 "실로 3교를 통합하여 군생들을 집화한다" 라고 하는 귀절에도 잘 나타나 있다.(김영태, 1963, pp.36~37)

지적을 통하여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통합해서 보면 일관이요, 전개해서 설하면 십문이다. 전개해도 하나가 늘어나지 않고 통합해도 하나가 줄어들지 않는다. 전개해도 번거러워지는 것이 아니요, 합친다고 좁아지는 것이 아니다.”⁴¹⁾ 이와 같이 전개와 통합이 자유자재로워지게 되면 산을 보지 못한 채 골짜기에서 헤매거나, 나무를 버리고 산으로 달려가는 우를 범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하여서는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집과 교만은 인식 대상을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무념과 무심, 무아의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효는 『대승기신론소』를 통하여 “무념을 얻으면 상대방과 더불어 평등해진다”고 하였다.⁴²⁾ 원효는 편협한 생각에 얽매어 일방적으로 한 면만을 고집하고 독단에 빠지게 되면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⁴³⁾

셋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말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은 본래부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러기에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 이를 원효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언설을 가지고 언어가 끊어진 법을 보여 주고자 한다. 마치 손가락을 가

41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전서, pp.604~678

42 이기영, 1967, p.161

43 한국불교전서1, 583

지고서 떠나 있는 달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⁴⁴⁾ 말꼬리만 잡다 보면 정작 사물의 본질을 놓치기 쉽기에 주변정황을 두루 살펴 말이 내포한 뜻을 살려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효는 이를 “말과 같이 취하면 모두 다 허용되지 않고, 뜻을 얻어 말하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없다.”⁴⁵⁾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화쟁의 세 가지 적용 방법은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노사간에 야기되는 분쟁은 대개 노동 문제나 경영 상황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노사의 일방적인 판단,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오해와 곡해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 조정과 성과 배분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사가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개진하고, 다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면 각자의 주장과 판단간에 존재하는 편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의 공동정의를 통하여 편견과 독선을 개인화하지 아니하며,⁴⁶⁾ 나아가 시야를 좀 더 넓혀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조 조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또한 문제가 제기된 당시 기업 내외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세계 경제의 흐름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노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접점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 화쟁사상의 적용 한계

44 국역원효성사전서 5, p.792

45 국역원효성사전서 5, p.792

46 놀口, 1983, p.87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 일심을 지향하는 화쟁사상은 신라 불교가 제기 하고 있었던 두 가지의 문제, 즉 유식과 중관의 대립, 그리고 진(출세간) 속(세간)의 차별이라는 학문적 쟁점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진로를 제시하였다. 이런 업적은 교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교의 여러 경론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인생 체험을 통하여 화해시키려는 그의 끈질긴 노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그의 저술 어디에서나 '화쟁'의 두 글자가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⁴⁷⁾

화쟁사상이 단순한 교리적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일반 대중이 불타의 진실한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한 공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라의 민중을 크게 교화하여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만든 것도 또한 적지 않은 기여로 평가되고 있다.⁴⁸⁾ 그리고 이는 학문적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에서 시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階是 階非 및 재통합의 논리를 통하여 화해의 길을 탐색하는 화쟁사상은 사회적 가치와 시각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고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아니하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아니하다.⁴⁹⁾

그러나 원효의 화쟁사상은 어디까지나 불교라는 종교의 교리적 쟁론을 해결하는데서 출발하고, 여기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 있어 노사 관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적용되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없지

47 고익진, 「원효의 화쟁적 성격」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p.5~6

48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79

49 김현남, 「원효의 화쟁사상의 현대적 의의」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85

아니하다. Schleiermacher(1958, p.101)의 지적과 같이 종교의 교리나 도덕률은 종교 자체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에서 상징하는 최고신(the Highest One)이라는 개념이나 불교의 一心이라는 용어는 보편적 세계정신으로서 인간이 무한의 존재임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생명을 지닌 인간들이 현실의 사회 생활에서 야기하는 다툼과 갈등은 교리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종교적 논쟁이 좀 더 구체적이고 치열하다. 현실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다툼과 갈등은 단순히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종교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생존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급박한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다.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분쟁중 상당수 또한 그러하며, 고용 조정이나 집단 해고를 이슈로 하는 노사 분쟁은 그 전형적 예에 속한다.

불교의 경론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설명을 폭넓게 포용하여 통불교적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불교의 실천 원리로서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는 원효의 화쟁 원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깨치게 하고, 학문적 논쟁이나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교리가 너무 복잡 난해하여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여 실제의 생활에 활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⁵⁰⁾ 그리고 국민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와 같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그 활용가치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한 국가 내에서 종교적 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0 정토교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런 사상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제시하고 있다.

V. 결 론

노사 관계에는 협력과 대립의 양면적 속성이 기본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노사 관계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나 구조 조정을 둘러싸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극심한 노사 대립과 파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파국적 대립과 파업은 이해의 상반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노사 문제에 대한 노사 관계 당사자의 근본적 인식의 차이와 자기 판단과 주장에 대한 편견과 독선에서 연유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여기서서는 이런 경우 노사 대립의 원만한 해결을 원효의 화쟁사상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하였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다양한 신라시대 종교적 교리와 주장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기본적 사상이지만 오늘날 노사 분쟁과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한 대립과 갈등의 해결에도 적용될 여지가 적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전개와 통합의 자유, 자기중심주의의 배제, 그리고 분쟁의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의 기본원리는 구조 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 갈등과 파업을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리들이다. 그리고 화쟁사상의 뿌리가 되는 일심사상 또한 노사가 궁극적으로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운명체임을 자각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임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관계 당사자가 모두 원효의 화쟁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지금 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대표자가 화쟁사상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교육과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근로자들도 폭넓게 이런 사상을 이해하고, 노사 문제의 해결에 이를 접목시켜 보도록 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사상의 이해와 적용이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데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결코 없다. 현실의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극심한 대립과 분쟁들이 모두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한 다분히 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쟁사상으로 깨끗이 치유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의 화쟁사상은 정부와 노사 관계 당사자가 노동 정책의 차원에서 슬기롭게 활동하기만 한다면 노사간에 존재하는 이념의 차이나 인식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노사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현재 우리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적 조정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영섭, 「원효의 화엄학」 『원효학 연구』 제5집, 원효학 연구원, 2001.
- 고익진, 「원효의 화쟁적 성격」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 김상현, 「원효의 실천행」, 원효학 연구원 『원효학 연구』 제5집, 2001.
- 김상현, 「원효」, 고려원, 1994.
- 김운학, 「원효의 화쟁사상」,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 김현남, 「원효 화쟁사상의 현대적 의의」,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p.85
- 김선조, 「원효의 화쟁론 소고」,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 김영종, 「단제교섭과 임금협상」, 형설출판사, 1990.
- 노동부, 「매월노동동향」 2, 한국노동연구원, 2002.
- 박성배, 「원효의 화쟁논리로 생각해 본 남북 통일문제」, 『원효의 화쟁사상 I』, 1994.
- 박재현,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재고」, 『불교평론』 제33권 제3호, 2001.
- 신옥희, 「一心과 포괄자」, 「원효의 보편성」,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1993.
- 윤창영,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광주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집, 2001.
- 이기영,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 「다보」 6, 대한 불교진흥원, 1993.
- 조명기,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 신태양사, 1962.
- 조순모,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KLI, 2001.
- 최병헌, 「원효의 실천행에 대한 논평」, 『원효학 연구』 제5집, 2001.
- 최영기, 전광석, 이철수, 유범상,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 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최유진, 「원효의 화쟁방법」, 『백연불교논집1』, 백연불교문화재단, 1991.

石田充之, 『浮土教理史』, 東京: 平樂寺書店, 1962.

嬰本義彦, 「신관의 인간관과 그의 사는자세」, 『龍谷紀要』 2.2, 1981.

Jorgensen Paul Henning, "Die Bedeutung des Subjekt-Objekt Verhältnisses, für Theologie." Herbert Reich-Evangelischer Verlag, Hamburg-Bergstadt, S249, 1967

Schleiermacher F., On Religion, New York: Harper&Row, 1958

Prutt. D. J. "Strategie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2), 1983.

Shea. C. F. Creative Negotiating. Boston: CBI Publishing Co. 1983. 87.

Waister. E. H. & E. Bersheid, Equal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 Bacon, 1978, pp.48~56

Barry. N. The New Right, New York: Croom Helm, 1987